

2009 꿈을 펼쳐라

(4) 판화가 임병중 씨



임병중씨가 선사시대 암각화와 고대벽화에 등장하는 옛이미지를 재해석한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판화의 모든 효과 직접 실험 "주술사처럼 깎고 또 깎겠다"

고대 인류는 고래와 들소를 잡고 싶은 욕망을 바위나 동굴 벽에 그림으로 남겼다. 그들이 바위를 긁거나 동물의 피를 묻혀 그렸던 이미지들은 예술가의 최초 직업이 주술사였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연상케 해준다.

지난해 광주미술상 수상 성신여대에서 박사과정 "서울 진출해 평가 받겠다"

더욱 복잡하게 분화되고 있는 현대 미술의 수많은 소재 중에서도 인류의 가장 오래된 욕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묵관화에 묻힌 유성 판화 인크가 지면에 찍히듯, 그는 고대의 이미지를 현대라는 공간에서 찍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광주미술상 운영위원회(위원장 강연근)가 수여하는 '제14회 광주미술상'을 받는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회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판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화단에서 묵묵히 판화만을 고집했던 그의 예술성이 인정받은 것이다. 광주미술상은 지난 1995년 광주·전남에 연고를 둔 원로, 중견 미술인인 후배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그는 신년 벽두부터 다양한 형식 실험을 통해 서울 무대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불필요한 부분을 파

내는 불록 판화의 일종인 '소별 점층법'을 개발해 관심을 모았다. '소별 점층법'을 기반으로 흙, 탄산마그네슘, 천연 안료 등을 첨가해 유화의 질감이 살아있는 판화 작품을 창작했다.

올해는 더욱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투명 플라스틱을 작품 위에 세워 '호박 화석'의 느낌을 내는 창작 기법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 오래된 벽화를 그대로 때어낸 듯한 낡은 느낌을 살리기 위해 작품 자체를 투명 플라스틱에 씌운 것이다. 올해 그는 판화가 낼 수 있는 거의 모든 효과를 실험을 통해 직접 경험해 볼 예정이다.

그는 "판화는 잉크와 기름의 양, 찍어내는 힘 조절에 따라 작품의 느낌이 달라진다"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만이 작가로서 생존하는 길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는 서울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그는 성신여대 미술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으며, 서울 갤러리에서 개인전 개최도 추진하고 있다. 대학원에서 젊은 작가들을 만나 창작 의욕도 키우고, 중앙무대에서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서다.

광주지산갤러리의 화에실장을 맡고 있는 그는 올해 청년 작가들을 위해 더욱 많은 전시회도 기획할 계획이다.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愚公移山)"는 말처럼 묵묵히 작업을 하다 보면 자연히 화단과 관람객들이 내 작품의 의미를 알아 줄 것이다"라면서 "절박한 소망과 생존에 대한 갈망을 벽에 표현했던 과거의 주술사처럼 복판을 깎고 또 깎아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에 퍼지는 '클래식 바이러스'

'베토벤 바이러스 in Live' 광주 무대

14일 문예회관 대극장

'감마에 신드롬'을 일으켰던 MBC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삽입곡들로 꾸며지는 음악회가 열린다. 드라마 음악감독을 맡았던 지휘자 서희태씨가 주축이 돼 꾸려진 60인 오케스트라 '베토벤 바이러스 in Live'는 서울 공연에 이어 광주에서 클래식 팬들을 만난다. 1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연주 레퍼토리는 주제의 '경기병 서곡'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엔리코 모리코네의 '가브리엘의 오보에', 요한 스트라우스의 '격정 없이 플라' 등 극중에 삽입돼 많은 인



서희태씨

기를 모았던 곡이다. 또 베조 소프라노 이아경이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 '울게 하소서'를 들려주며 바이올리니스트 송원진은 사라사테의 '찌고이네라비 이젤'을 선사한다.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드라마에 카메오 출연했던 피아니스트 서혜경이 협연하는 베토벤의 피아노협주곡 5번 '황제'다. 피날레 곡은 드라마의 엔딩곡으로 사용됐던 베토벤의 교향곡 '합창' 4악장 '환희의 송가'를 테너 나승서, 바리톤 최진학씨 등 솔리스트와 인천오케



지휘자 서희태씨.

라합창단의 연주로 들려준다. 푸짐한 앙코르 곡들이 준비돼 있으나 혹시 드라마에서 감명깊게 들었던 곡인데 레퍼토리에서 빠졌다고 서운해 하지는 말 것. 서희태씨가 들려주는 드라마 에피소드, 클래식 음악과 연주곡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티켓 가격 7만 7천원~4만 4천원. 문의 1600-800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에이옥션 을 첫 온라인 경매

한국화·서양화·고서화 등 122점 출품

전문 미술품 경매 회사인 에이옥션(대표 서정만)이 9일~15일까지 2009년 첫 온라인 경매(http://www.a-auction.co.kr)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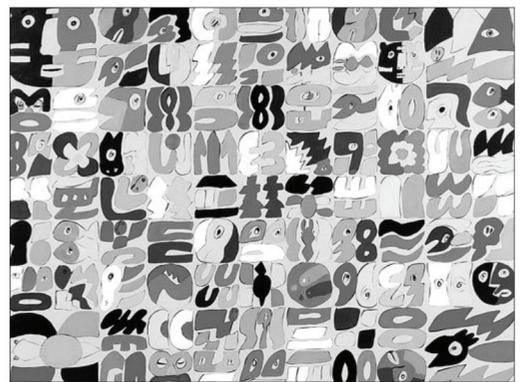
이번 경매에는 한국화, 서양화, 고서화, 고가구, 조각 등 122점이 출품되며, 최저 시작가 15만원부터 최고 시작가 1천500만원까지 종류와 가격이 다양하다.

특히 이번 경매는 대부분의 작품이 100만원대 이하여서 컬렉터들이 큰 부담없이 작품을 구할 수 있고, 현대미술에 주안점을 둔 다른 경매와는 달리 고서화가 다량 출품됐다.

경매에 참여하는 대표 작가는 황영성, 허건, 허영, 박성환, 박영선, 양달석, 강대운, 전혁림, 김유준, 안창홍, 박영근씨 등이다. 황영성 화백의 '가족이야기'의 시작가는 1천500만원이며, 박영근씨의 '월리얼'은 600만원에 경매가 시작된다.

이 밖에 가수 겸 화가로 활동 중인 조영남의 '언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와 미산 허영의 '백남병 6곡', 탄허 스님의 '취호' 등의 작품이 관심을 끈다.

에이옥션은 또 5월에는 대구, 9월에는 서울, 12월에는 광주에서 오프라인 경매도 열 계획이다.



황영성 작 '가족 이야기'

지난해 광주에서 열렸던 에이옥션의 '제6회 근·현대 및 고미술품 경매'에서는 출품작 239점 중 69점이 팔렸다. 총 낙찰액은 2억여원이었다.

서정만 대표는 "이번 온라인 경

매는 미술시장에서 저평가된 작가들의 작품 위주로 선별했다"며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대의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문의 063-285-700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물새들의 조용한 집' 출간

광주전남소설가협회



이밖에도 김대경씨의 '물새', 신동규씨의 '가이드감', 전용호씨의 '산새도 오리나무' 등 회원들의 중·단편 9편이 실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소설가협회(이사장 정음식) 일곱 번째 작품집 '물새들의 조용한 집'이 나왔다. 이번 작품집에는 IMF과난 속 해고당한 30대 후반 가장이 첫사랑과 불륜에 빠진 이야기를 쓴 정음식씨의 '조용한 집'과 명절에 고향을 찾은 가족들의 애환을 재미있게 풀어낸 한승원의 '희망'이 실렸다.

이밖에도 김대경씨의 '물새', 신동규씨의 '가이드감', 전용호씨의 '산새도 오리나무' 등 회원들의 중·단편 9편이 실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무용협회 광주지회장 정혜경씨



(사)한국무용협회 광주광역시지회에 정혜경(송원대 교수·사단)씨가 선임됐다. 한국무용협회 광주지회장은 지난 7월 정기총회를 갖고 현 회장인 정씨를 재추대했다. 정 회장은 이화여대 무용과와 전남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광주시립무용단 훈련장을 거쳐 아시아 공연예술제 부집행위원장과 광주예술인연합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혜경은 광주무용인상과 제13회 광주예술문화상을 수상했으며 2010년 전국무용제를 광주에 유치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명인 65년 생활도에 특별전'

12~18일 유스퀘어 전시장

학교법인 우암학원(설립자 조용기)이 설립한 우암문화재단(이사장 이연희)은 오는 12~18일까지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전시장에서 다양한 생활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명인 65년 생활도에 특별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도예가 이방근(85) 선생의 작품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암문화재단이 설립한 곡성시니어클럽 생활도에센터에서 이 선생의 지도를 받아 노인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함께 전시한다. 이방근 선생은 65년 동안 오직 도자기만을 빚어온 장인이며, 이번 전시에서 청자, 백자, 다기세트를 비롯한 생활용기를 선보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국민공인중개사' (National Public Broker) with contact info 011-635-7939, 010-2810-8103 and various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승공인중개사' (Daseung Public Broker) with contact info 062)954-7700, 010-9468-7959 and various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正心 正視 正行' (Jeongsin Jeongsi Jeonghaeng) with contact info 062)431-2834, (H.P) 010-6460-2834 and various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상무랜드공인중개사' (Sangmuland Public Broker) with contact info 011-600-5221 and various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다우공인중개사' (Dau Public Broker) with contact info 0523-8114, 011-603-1308 and various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dong Samil Real Estate) with contact info 011-602-2532 and various property listings.